

개성공단과 국내 의류 · 봉제 산업의 나아갈 방향

박흥식

(주) 신원 내수부문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Future Direction of Domestic Apparel and Sewing Industry

Heung Shik Park

ShinWon Domestic Division President

1. 서론

1-1. 국내 의류의 생산 현황

국내의 의류 · 봉제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 우리나라는 세계 의류 수출규모의 10%를 담당하며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의류 수출 강국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국내 근로자의 높은 임금과 국내 중저가 브랜드들의 해외 생산 심화, OEM 위주의 의류 수출 산업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2006년 기준, 9인 이하의 영세한 사업장이 전체 국내 봉제공장의 85%에 달하는 **의류생산업의 공동화(空洞化)**가 심각한 실정이다.

1980년대 우리나라는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세계의 주요 의류 수출국이었으며, 90년대에는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내수 의류회사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IMF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류 · 봉제산업은 경영난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생산업체들이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 해외이전을 시작하였다. 또한 오늘날에는 남북 경험사업의 하나로 개성공단이 순조롭게 활성화 되고 있어, 중국 및 해외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생산기지들이 개성공단 투자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의류의 생산 현황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한국 섬유 · 의류 산업이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을지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1-2. 국내 의류 생산의 해외 이전 추이

현재 우리나라는 IMF 이후 하락기를 거쳐 시스템변화

의 시기에 있다. 그 동안 낮은 공임을 찾아 국내 생산에서 해외 생산처로 이전하였고, 국내시장의 다변화로 인한 오더-납기단축의 필요, 디자인 · 소재의 난이도 상승 등으로 국내 의류 업계는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생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인력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중국으로의 이전이 가속화 되었으며 현재 중국은 물론 동남아 주변국에서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중국 및 베트남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투자금액으로 볼 때 15억3천9백만불 규모로 우리 의류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이다. 중국은 현재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고 배후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중국내 판매가 용이한 점 등의 강점으로 세계 최대의 의류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도 인력수급 및 노무관리의 어려움, 중국정부의 외자기업 특혜감소정책 등의 경영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준조세부과 등으로 이미 진출한 국내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신규 투자처로서의 이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베트남의 경우 투자금액 기준으로 4억3천6백만불 규모로 중국의 30%정도 규모이지만 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되어가는 중국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또한 시장경제에 익숙하지 못한 제도 및 환경과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공무원의 부정 · 부패 등 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외에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로 생산성과 생산비

가 낮은 곳으로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또한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주중국, 2006).

2. 개성공단 개괄

2-1. 개성공단의 입지적 조건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60km, 인천에서 50km의 인접한 거리로 생산과 소비 그리고 해외 수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내의 다른 공업단지들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유리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연결된 경의선 철도를 통하여 TCR(중국 횡단 철도), TSR(시베리아 횡단 철도)과 연계를 통한 대륙진출과 인천을 통한 해양물류가 용이하여 남북공동경제개발을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이라 할 수 있다.

2-2. 개성공단 개발 계획

황해북도 개성시 일원에 위치한 개성공단은 총면적 65.7km²(2,000만평)의 규모로 공장구역 26km²(800만평)과 생활 및 관광·상업 구역 40km²(1,200만평)으로 개발 계획을 가지고, 현재는 공장구역 중 1단계에 해당하는 100만평이 조성되어 이미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이 마쳐진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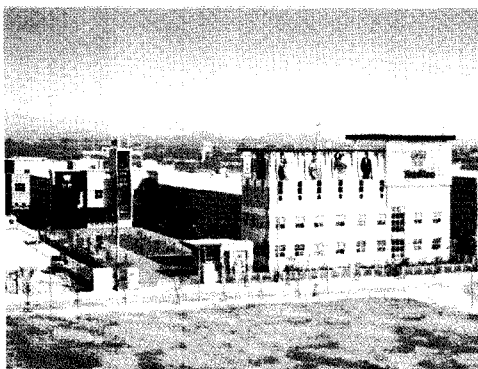


사진 1. 개성공단에 위치한 (주)신원 공장

최초 현대아산에서 개성공단을 계획하고 국내의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2003년부터 공단 부지 조성 공사를 하여 2004년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5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신원, 로만손, 삼덕통상 등 시범단지 내에 입주 해 2005년 도부터 공장을 가동하였다. 시범단지 입주 업체들의 비교적 성공적인 공장 운영을 바탕으로, 2005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개성공단의 본단지(1단계) 토지분양이 마무리 되었다(사진 1).

현재 노동집약적 업종 중심의 1단계 개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입주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공장 운영을 원활히 할 정도로 남북 경험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성 공단은 기술집약적 산업 중심의 2단계 250만평 개발을 통한 세계적인 수출기지로서의 성장과 3단계 사업으로는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의 550만평 개발로 동북아의 거점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12년까지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진행으로 볼 때 남북관계 및 북핵 등의 변수로 다소 지연되리라 생각된다.

2-3. 개성 공단의 투자 절차

먼저 한국토지공사 개성사업처에 토지분양을 신청한 후 분양을 받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확정짓는다. 다음으로는 통일부에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지정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대북투자신고수리를 하면 남측에서의 투자절차 업무는 마무리가 된다. 협력사업자 승인과 대북투자신고수리가 완료되면, 개성공단 현지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로부터 개성법인의 기업창설승인 및 등록을 한다. 마지막으로 개성공업지구 세관과 세무서에 투자할 법인을 신고·등록하면 모든 절차는 끝나며, 이후로는 설립된 법인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원의 출입계획, 물품의 출입계획, 차량의 출입신고 및 출입업무를 진행하여 사업을 개시한다.

2-4. 개성공단 노동제도

현재 개성 공단의 월 최저임금은 US\$ 52.5이다. 여기에 월 임금 총액의 15%가 사회 보험료로 추가 된다. 연장 및 야간 근무의 경우 시간당 노임의 50%가 추가되며, 휴일 및 주 48시간 초과 야간 근무의 경우 시간당 노임의 100%가 추가된다. 또한 휴가비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노임을 휴가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여성의 출산 휴가의 경우 60일로 책정되어 있다. 그 외에 기업의 책임 또는 교육으로 인하여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생활보조금으로 시간당 노임의 60%를 지급하며, 1년 이상 근무자를 기업의 사정

으로 퇴직시킬 시에는 퇴직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성공단 내의 인력수급은 입주기업이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노력알선기관에 신청하면 필요한 인력을 북측이 관리기관(개성공업지구 지도총국)에서 인력을 선발하여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인원의 유동성이 남측의 노동시장과 비교한다면 크게 경직되어 있는 실정이다.

2-5. 개성공단 비교

개성공단과 중국의 경제특구, 베트남 3국의 토지, 건축비 등 기본비용을 비교하면 건축비용은 크게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계설비비용을 들 수 있다. 토지 구입비는 한 평 기준으로 개성공단이 14만 9천원, 베트남이 14만 7천원, 중국 개발구가 13만 4천원 선으로 큰 차이가 없는 편이며, 개성공단의 토지 분양가는 부지조성을 위한 비용과 현대아산이 개성공단 개발사업권을 획득하여 북측에 지불한 비용을 근거로 산출되었다. 건축비의 경우 개성공단은 현대아산에서 남측의 원부자재를 개성공단에 반출하여 건설하므로 국내기준 건축비용과 차이가 거의 없으며, 전부 남측에서 이전되므로 평당 150만원에서 210만 정도이다. 중국의 경우 평당 5천6백 위안~8천6백 위안(한화 70만원 ~ 83만원)으로 개성공단이 중국보다 2.4배 높다. 따라서 총공사 건설비용은 개성공단이 중국개발구나 베트남보다 1.6배~1.5배 가량 이므로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 또한 3국 모두 사회주의국가로 영구적인 토지 소유권이 아닌 50년간 임차할 가격이나 기업창설 후 2년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하다. 임금은 개성공단이 베트남의 70% 수준이고, 중국과 비교해서는 36%에 불과한 수준으로 비교우위에 있다. 그리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경우 남측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남측과 같은 수준으로 중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용수비는 세 지역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개성공단은 현재 지하수 관정을 통해 공업용수를 쓰고 있다. 현재 정수, 배수장을 시험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곳을 통해 용수 공급이 이뤄질 것이며, 비용이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비용은 중국이 가장 낮고 개성공단과 베트남이 비슷한 수준이다. 개성공단은 그 동안 임시폐수처리장을 사용했으나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곧 운영됨에 따라 처리비용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의 경우 개성공단이 당기순이익의 14%로 중국 15%, 베트남 15%에 비하여 다소 낮은 상태이나 이익이 난 해부터 5년간 면제를 해주며 그 다음해 3년간은 50%를 감해주는 우대정책으로 이 또한 유리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2-6. 개성공단의 기술 및 생산성 비교

북한의 섬유산업 기술 수준은 남한을 100으로 봤을 때 원료를 만드는 화섬 50, 방직 60, 제직기술 50, 염색가공 50, 봉제기술 수준 80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초 봉제기술(재단, 무늬맞춤 등)의 숙련도가 높고 단추달이, 잔사 및 제사처리의 완성부분은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특수봉제의 경우에는 설비 및 기술노하우의 부족으로 한국의 기술수준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성 공단의 의류 생산성 분석을 보면, 시간당 생산성은 중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당 생산성의 경우 중국에 비해 다소 낮은데 이는 개성공단의 경우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 및 추가 근무를 자유로이 시행하기 어려운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평균 공임은 개성공단이 중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물류비의 경우는 육로 운송으로 당일 물품의 출입 및 통관이 가능하므로 중국이나 기타 해외 생산처에 비하여 매우 유리하게 나타났으며, 비단 금액 측면 외에도 물류시간(서울에서 평균 1시간 30분 소요)을 감안하면 이 또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다.



사진 2. 개성공단의 (주)신원 공장 작업 현장

3. 개성공단의 문제점 및 과제

3-1. 주요 문제점

1) 인력공급

개성공단은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치의 한복판에 위치하여 있고, 그 외에 북한경제의 낙후 및 당국의 정책일관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다. 개성공단의 주요 쟁점사항인 노동, 원산지, 군사안보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노동부분에서는 현지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있을 수 있다. 개성공단 1단계 건설공사는 마무리 되었지만 약 150여 업체가 아직 공장을 건축하고 있거나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입장이다. 현재 시범단지 15개 업체, 그리고 본 단지 1차 24개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남측으로 반입을 하고 있는데 북측 근로자가 약 2만 2천명 정도가 투입되어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향후 1단계 모든 업체가 공장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약 8만~9만명의 북측 근로자가 필요한데 양질의 인력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3단계 개성공단 건설계획이 마무리 되면 약 2천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할 것인데 신술치로 따지면 약 백만명의 근로인력이 필요한데 이 많은 인력을 북측에서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들이 거주할 생활구역 또한 같이 갖춰져야 한다. 또한 이들의 가족이 개성공단에서 생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주를 해야 하는데 거주 및 이주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이러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 또한 멀리 않은 장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2) 임금

현재까지는 60.38달러에 년 5% 임금인상을 하기로 북측 당국과 협의했으나 이러한 협의사항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지켜질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임금의 간접지불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 유인의 어려움 및 인사권이 사용자에게 있지 않은 관계로 노무관리에 애로가 있다.

3) 원산지 표기

원산지 문제의 경우 개성공단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의 기업이 수출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의 실정에서 현재 해외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이 매우 제한적인 점은 개성공단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원활하게 수출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원산지규정이다. 원산지가 'made in D.P.R.K(개성)'으로 표시되느냐, 'made in Korea'으로 표시되느냐에 따라 관세 및 수출쿼터 등이 결정되므로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 원산지표시 문제이다.

4) 남북관계

군사안보 면에서 현실적으로 개성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경색된 남북관계가 장기화 될 경우 개성공단이 침체될 수 있으며, 특히 위기 시에 북한이 개성공단을 정치적 불모로 이용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또한 잦은 교류로 인하여 국가안보가 흐트러질 수 있으며, 뜻하지 않게 전략물자의 유출위험도 있다.

실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시기에는 대북 햇볕정책을 위시하여 평화변영정책, 대북포용정책과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이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으로 그 동안의 완화된 분위기가 다시 경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간담회에서는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고 하여 개성공단 내의 남북경협 사무소 공무원 11명이 철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개성공단의 앞날이 남북의 정치·군사적인 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예라 볼 수 있다.

3-2. 주요 해결 과제

1) 통행의 간소화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성공단 시작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간소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방문절차가 까다롭다. 남한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북측으로부터 출입증(초청장)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만 7일에서 10일정도가 걸린다. 여기에 남한당국에 북한 방문 신청을 하고 출입계획을 통보한 다음에 방문 증명서까지 받으려면 10일정도가 더 소요된다. 따라서 개성공단 최초 한 번 방문하는데 통상 20일 정도가 걸린다. 이후 재방문시는 3일 전에 출입계획을 신청하면 출입할 수 있다. 서울에서 개성공단까지 70km이니 약 1시간 30분이면 달을 수 있는 거리이다. 이렇게 짧은 거리인데 개성공단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입북할 때 남측 CIQ(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와 북측 CIQ를 통과해야 하며, 출북할 때 북측CIQ와 남측CIQ를 통과해야 한다. 하루 네 번의 출입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 절차의 신속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2) 통관의 간소화

개성공단은 남측에서 원부자재를 반출하고 북측의 노동력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여 다시 남측으로 반입하는 시스템이다. 개성공업지구법상 북한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북한으로 공급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남측에서 원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 전에 우선 반출 신고필증을 세관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그리고 운송사로부터 세관에 적화목록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개성공단은 육로운송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화주가 직접 적화목록 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대북 협력사업 운송사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해외수출의 경우 대부분 원거리 운송으로 신고시 여유가 있는데 개성공단은 하루에 모든 운송이 이뤄지므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개성공단은 원부자재 뿐만 아니라 식재료, 소모품 등 기타 모든 물품이 남측에서 공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물품을 전부 나열하여 반출신고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개성공업지구법상 관세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관세를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인데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어 반입되는 제품의 원부자재가 전부 남측을 통해서 반입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용역의 수입(북측의 노동력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생긴 것으로 봄)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인 효과가 크게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에 있어 먼저 세금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에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통관은 물품의 이동이 수반되는 절차이므로 물품이 신고한 내용과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물품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관에서는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세관원의 재량과 기업의 물품 반출입진행 사이에 발생하는 신뢰도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3) 통신의 자유화

2006년 말에 개성공단 통신센터가 완공돼서 300회선의 남북한 직통 전화선이 생겼기 때문에 시범단지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아직도 사용할 수 없으며 휴대폰을 소지하고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도 없다.

남한에서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필수적인 통신수단이 돼 있는데, 빠르고 손쉬운 정보교환이 필요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매우 아쉬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인터넷

과 휴대전화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개성공단에서 이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세계는 지금 인터넷사용, 해외 본지사간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간 내용공유 및 화상폰의 사용으로 최첨단 통신장비가 도입되어 상용화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통신체계 도입으로 본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현지 관리체계는 시공을 초월하여 진행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점점 단일화되어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이메일, 사내 전산망을 포함한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기업경영에 매우 큰 장애요소라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을 끝내고 개성공단에 잠시 머무르면서 통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지 7개월이 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4) 개성공단 2단계 및 3단계 개발을 위한 과제

앞서 발표한 개성공단의 장점 및 FTA 협상, 중국의 경영환경 악화, 국내 생산기지 이동의 가속화 등의 여건으로 개성공단은 국내 제조기업에 매우 적절한 대안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하여 먼저 효율적인 투자전략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계획은 국내기업의 여건에 맞게 수출을 위한 전략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등 주요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로도 수출할 수 있는 다각화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북측 당국의 강력한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하며, 개성공단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와 번영의 관점으로 비쳐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관된 정책과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개성공단에 보다 많은 기업과 생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 EU지역과 동남아, 중동, 남미지역 수출은 대부분이 한국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뿐만 아니라 품목에 따라서 수출관세가 낮은 품목이 있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수출의 방법과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이제 세계 경제흐름에 동참하여 발맞춰 간다는 생각을 갖고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대상에서 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개혁과 개방을 통해 개성공단이 하루 빨리 역외 가공지역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

여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3단계 사업은 IT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및 대기업을 유치하여 동북아의 생산 및 수출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에 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략물자승인제도가 있어 전략물자반출입공고 상에 계기되어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반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힘에 의한 정권유지가 아니라 경제와 번영, 복지라는 측면으로 생각의 패러다임을 이동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개성공단과 국내 의류 · 봉제업의 나아갈 방향

4-1. 북측근로자의 노동 생산성 제고

임금 직불제를 통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도모이다. 시장경제 체제에 익숙한 국내기업으로서 노동자의 근로의식 고취를 위해 임금인상 및 상여제도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개성공단의 임금 지급은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을 통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고용주인 남측 기업은 근로자 개인에게 얼마만큼의 임금이 주어지는 지 알 수 없으며 이는 향후 노사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급여 및 상여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데 북측은 현재 남아있는 마지막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의하여 의식주를 공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불제는 시기 상조라 할 수 있다.

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동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조건이 구조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급여를 달러로 지급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외환관리제도에 의하여 상여금 및 인센티브를 북한화폐로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면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2. FTA협상에서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

개성공단을 활용하여 FTA시대에 우리 섬유 · 의류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산 제품에 대해 적성국에만 부과하는 초고율관세인 column2를 적용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대미 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원산지규정을 체크하여 단기적으로

수출 가능한 제품군을 선정 · 육성하며, 미국과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EFTA¹⁾, 싱가포르, 아세안²⁾의 경우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을 인정받았으나, 제품 수출이 미비하다. 이점은 신원과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들 국가 시장으로 진출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여야 한다. 그리고 FTA를 이용해 동남아 및 FTA체결 국가로부터 구매한 원자재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여 내수시장에 판매할 경우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업체유치 당시 관세혜택에 대한 암시를 해왔고 업체에서도 기대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한·미 FTA 경제적 효과”, 2006). 개성공단에는 북한의 특수성 때문에 주로 제조업체들이 진출해 있다. 그 중에서도 섬유 · 봉제관련 업체가 많다 보니 업체에서 한 · 미 FTA협상과 개성공단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게 작용했다(“한미FTA 타결”, 2007). 섬유 및 의류의 관세율은 한국과 미국 모두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섬유 및 의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 의류 완제품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13%의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종류에 따른 관세율이 더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서 완제품을 기준으로 5~20%의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 미 FTA가 체결되는 경우 섬유 및 의류 분야에서의 관세장벽은 모두 낮아지는 것이지만, 국내 제조업이 점점 해외로 이전을 하고 있고, 안포워드 규정을 따른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큰 효과를 보게 될지 의문이 생긴다.

한 · 칠레 FTA 체결 후 수입과 수출이 모두 60% 이상 늘어난 것을 볼 때, 한 · 미 FTA도 당연히 수입과 수출 모두 양적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양국 모두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기에 자국이 약세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FTA를 통한 장벽 제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보완조치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이 더 유리할지, 미국이 더 유리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미국과 한국의 거래관계는 단순히 관세율, 시장점유율, 기존의 수출금액 등으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인 논리가 크게 작용하고, 반

1) EFTA 회원국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2) 아세안 회원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 10개국

미감정이라는 대중의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하는 것이어서 현재의 수치화된 많은 예상들은 그저 예상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섬유 및 의류 부분에서의 수출이 증가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일반 수출제조업체의 입장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류·봉제 산업은 한국이 워낙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낮아지는 경우 수출은 당연히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어도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가 미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FTA의 효과는 더욱 감소할 것이다. 특히 중국산 섬유 및 의류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가 철폐되기도 중국산 물품에 시장을 내어주는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고, 중국과 미국의 포괄적 무역장벽 제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국에 비하여 관세 부분에서의 우위가 더 이상은 없으므로, 한국 기업들이 그 품질에 대한 자부심만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견디내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미 FTA 협상 이후에 개성공단은 세계화 시대에 내수제품 생산업체들만 진출하게 되는 반쪽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한·미 FTA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 또한 사실이다. 한미 양국이 FTA 협정문 발효 이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미국이 개성공단 자체를 인정함은 물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인식한 셈이 된다(김영운, 2007).

현재 시범공단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개성공단이 남북 교류협력에 절대적인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임이 틀림없다. 아직은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있어 판로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나 자체시장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세계시장을 상대로 생산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미국 시장은 우리에게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시장에 개성공단 제품이 관세 없이 또는 저 관세로 들어갈 수 있다면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 더욱 중대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양적인 수준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역외가공’으로 인정되어 한국산으로 수출할 수는 없지만 이후 협상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앞으로 미국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경우,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따르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개성공단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4.3. 명품브랜드를 창조하기 위한 고품위 의류제품 생산

21세기 국내 의류·봉제 산업의 생존전략은 기존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던 매장확대와 저가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신기술 및 신소재, 명품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많은 액수를 투자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시대에서 성장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내화가 세계화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것이다. 국내 패션 의류산업을 볼 때 명품브랜드로서 세계시장에서 유명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눈에 꼽을 정도다. 그동안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국내 의류시장은 괄목할 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중국 의류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봉제산업은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이 가속화되어 의류산업은 국내에서 조차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시작했다. 과거 60년대, 70년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의류·봉제산업이 이제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토대로 이제는 질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 우선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품종 저가정책이 아니라 최상급의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시장을 리드하는 창조성과 창의력을 통한 기획이 이뤄져야 하고 고품위의 질 좋은 제품이 생산되어야 하며, 마케팅의 능력 또한 요구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의류·봉제산업도 명품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 세계 속에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생산의 안정적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개성공단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으로 개성공단과 국내 의류·봉제 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FTA시대 개성공단을 활용하여 국내 의류·섬유 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원산지 규정을 체크하여 당장 적용 가능한 품목을 알아보고, 여전에 맞는 수출품목과 수출지역으로 수출해야 할 것이며, 적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대미 수출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개성 공단을 역내산으로 인정한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지역의 수출을 늘려 개성공단의 활용을 높여야 할 것이다. 반면 FTA를 활용하여 원료 및 원자재를 낮은 가격에 소싱하고 개성공단

을 이용하여 생산하면 내수시장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의류·봉제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명품브랜드가 국내 의류제품에도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고품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에 많은 의류 봉제업체들이 진출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서 생산의 안정화와 고품위 제품 생산에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윤. (2007). 한미 FTA 체결과 남북경협,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1.

주종국. (2006). 국내 의류 기업의 중국 및 베트남 글로벌 직소싱 전략,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 (2006. 11. 7).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gofta/80030784814>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2007. 4. 2). 지식경제부 경제협력국 통상기획과, 자료출처 <http://www.mke.go.kr>

박 흥 식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패션산업 최고경영자 과정 졸업
현재 (주)신원 내수부문 CEO
현재 한국패션협회 부회장
교신저자 E-mail:swspark@sw.co.kr
